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 오후 5시18분 '대동세상' 퍼포먼스

518비엔날레가 오월의 나눔 정신과 대동정신 그리고 희망을 담은 '518 아트버스'로 거듭났다. 고근호 작가의 작품인 이 버스에서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 기간(8월~11월9일) 주먹밥 및 생수 나눔 행사를 비롯해 특정 시간 오후 5시18분에 예술가들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열린다. ▶ 관련기사 17면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재유출 막아야 vs 특권교육 안된다

이슈 진단 | 自私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문제로 촉발된 광주 시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찬반토론 3면> 교육청이 '성적 제한 완전 폐지'를 전제 조건으로 재지정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 항의방문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버리고 있다. 또 다른 자사고인 송덕고도 교육청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일주일 내 자사고 문제의 해법을 내지 못하면 내년 신입생 뽑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전제조건은 폭압적? =송원고는 "교육청이 내 건 전제조건이 폭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실시한 평가를 무난하게 통과하자, 탄죽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송원고는 지난 1일 광주시교육청에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내신 상위 30%이내'를 '내신 50%이내'로 완화했다. 일종의 수정안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 4일 전제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려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성적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조금도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특권교육은 안된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원고는 "한 곳의 자사고는 성적을 제한하고, 다른 한 곳은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신입생들도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성적제한을 폐지할 경우 사실상 일반고와 다를 게 없어 신입생 모집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지점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또 다른 자사고인 송덕고도 교육청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송덕고는 지난 5월 '자기주도 선발'을 내용으로 한 전형요강을 마련, 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자기주도전형은 불가능하다"고 반려했다.

그러나 송덕고는 "자기주도 전형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교육부가 '전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묻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광

■ 송원고·송덕고
성적제한 완전 폐지는 폭압
사실상 일반고와 같아
신입생 모집 차질 불가피

■ 광주시교육청
4년 전 자사고 지정 때
전형 방법 추첨 방식
자기주도형 전형 허용 못해

주시교육청이 학교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추첨 방식'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교육청이 학교 측에 교육부 공문을 전달했다면 학교 측은 '자기주도전형'을 제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의 한 자사고는 그 때 자기주도전형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원천적으로 교육청의 잘못으로 자기주도전형을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4년 전 자사고 지정 때, 전형방법은 추첨 방식이었다"며

"자기주도 전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승인 안되면 신입생 모집 못해 =송원고와 송덕고 모두 전형방법을 고수하고 교육청이 끝내 승인을 거부하면, 이들 학교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공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내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 학교는 그 책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근거도 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자사고를 말살하려 한 게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또 "광주 자사고는 최상위 학생의 유출을 막는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사고의 감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송원고의 한 학부모는 "교육감이 바뀌는 4년마다 교육정책도 따라 변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행정기관의 정책이 이념에 따라 바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격앙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중 수교 22년 앞두고 21일 세미나...지방정부 중국교류 논의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인접한 중국과의 교역·교류 확대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일보사와 (사)한중관광문화포럼,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은 한·중 수교 22주년(8월 24일)을 앞두고 '민선 6기 광주·전남, 중국과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인 중국 교류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 중국 전공 관련 학자 및 학생과 중국교류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21일(목)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호남대학교 국제세미나실(광산캠퍼스)
- 기조발제 :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과 광주 전남의 접근 방안
왕시엔민(王憲民) 주 광주 중국총영사
- 주제발표 1 :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광주 전남의 대응전략
조철 산업연구원 기계전자팀장(산업연 배이지지일 전 수석대표)
- 주제발표 2 :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주 전남의 관광협력방안
박창규 전남도립대학교 호텔관광문화학과 교수
김진강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 주최 : 광주일보사, (사)한중관광문화포럼
-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우리투자증권**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협력지사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경찰대 출신 첫 청장 되나

경남 합천 출신 경찰대 2기

경찰위, 임명제청안 동의

정부는 6일 이성한 경찰청장 후임으로 강신명(50·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강 서울청장을 면접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에 동의했다.

경찰청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안행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내정자는 경찰대 2기로 후임 청장이 되면 사상 첫 경찰대 출신 경찰수장이 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나왔으며 경찰청 수사국장과 정보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



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내 청와대의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일찌감치 차기 청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 부담 30% 줄어

2014 세법 개정안 확정

삼성전자 등 4000개 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000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

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 <관련기사 10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든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공제가 이뤄지게 돼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2억원 미만인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세 부담은 평균 60만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700만원으로 늘어나며 만 20세 이상이 대상이었던 세급우대종합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줄어들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아파트의 관리·경비 등이 과세로 바뀌고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환경 경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서민종합건설

국립공원급 자연과 명문학교를 품은
단 하나의 프리미엄!

광주 일곡 **엘리체 프라임**

엘리체 PRIME

모든타입 1순위 청약마감
최고경쟁률 39:1

계약일정안내

정당계약	2014.08.11.(월)~ 2014.08.13.(수) 모텔하우스
예비당첨자 및 내집마련신청자 계약	2014.08.14.(목) 모텔하우스

분 / 양 / 문 / 의
062)573-4404

74㎡ A/B/C • 84㎡ A/B • 총 526세대

시행사: **에스이엔씨(유)** | 시공: **(주)서민종합건설**